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1>포교

포교는 3대지표 중 첫번째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전법 나서야
뉴미디어 활용 네트워크 형성 중요



2010년 11월 홍제동 개마마을에서 조계종 5대결사의 하나인 나눔결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나눔기가 진행중이다.



2011년 9월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 끝)

한국불교 장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지 출범5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해 1962년 출범한 이래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 지표로 삼아 발전을 거듭해 왔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3대 지표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을 비롯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를 교계인사와 전문가 제언으로 점검해 본다.

그 처음으로 '포교' 부문을 살펴본다. 조계종은 3대 지표 선포 당시 포교사업 추진계획으로 >교도단체 지도체계 확립 >순회포교 및 선전 >중군포교 >교교사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의 실천에는 1962년과 1963년 잇따라 제정된 '포교법'과 '신도단체법', '신도법'이 기반이 됐다.

제도적 지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종단 예산은 종단의 포교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포교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94만원. 포교원의 2012년도 예산 27억여 원과는 비교가 안되는 금액이지만 당시 종단 총수입이 1000여 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3대 사업을 위해 책정된 금액이 300만원이었다는 것은 3대 사업에 대한 종단의 기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은 포교에 힘을 모았다. 교법수호전국신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토틀비니회 삼보학회 등은 포교 최일선에서 전법에 앞장섰다.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의 대중화가 절실하다는 의식은 학인스님들도 나서게 했다. 동국대 석림회는 1973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 순회



2009년 11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포교결집대회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모여 전법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설법을 펼쳤다. 중앙상임포교사들도 전국 각지를 다니며 불교사상강연회를 열어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했다.

197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한 불교교양대학도 포교에 큰 보탬 됐다. 불교교양대학은 1972년 서울신도회가 불자의 자질 향상과 교양 확충을 위해 개설한 이래 오늘날까지 '불교대학'으로 이어지며 불교인재 양성 요람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71년 순천 송광사에서 시작된 사찰여름수련회는 한국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의 단초가 됐다.

포교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산중불교는 도심불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1982년 창건한 불광사가 그 예이다. 불광사 창건에 즈음해 시작된 현대식 도심포교활동은 수도권 일대의 잇단 도심포교당 개설로 이어지며 포교의 현대화를 도모하게 됐다. 조계종의 포교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1966년 숭산 스님이 일본에 설립한 흥법원은 조계종 해외포교의 시발이었다. 스님의 원력은 해외포교에 원력을 둔 후학들에게로 이어져 지금도 간화선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추진중이다.

1995년 포교원 별원은 조계종이 3대 교사의 구원을 위해 역량을 재결집한 사례로 기록된다. 포교원 별원으로 조계종은 보다 전문적인 포교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포교원 별원화 이후 포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양하게 시도됐다. 또, 사회초류에 부응하는 포교방편 연구 및 개발, 신원단체 등 포교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효율을 꾀하고 있다.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계간(불교평론) 홍사성 주간,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에게 포교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문서포교
전문가들은 문서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포교기법 가운데에서도 문서포교는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사성 주간은 “경전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준거이다. 불교 이해의 준거는 큰스님 법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불교를 말할 때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私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정법과 멀어져 자기만의 불교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종단 출범 이후 50년 동안 문서포교의 양은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홍사성 주간은 “1960~1970년대 불교학개론서가 10여 종이 못했던 것과 비교해 지금은 읽을 책이 넘쳐난다. 지금은 수많은 책 가운데 육석을 가릴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법회에서의 설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회가 의례로 전락하다보니 대중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없었고 이것이 결국 사찰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홍 주간도 “공양 등 재시를 받으면 반드시 설법 등 법시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결국 문서포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계 인원이 사찰 매매, 역학 등 광고를 신는 등 정법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교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미디어포교

전문가들은 포교가 성공하려면 기다리는 포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포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의 산중 편중 등 불교계의 빈약한 포교 인프라를 극복하는 데에는 SNS 등 뉴미디어 포교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는 이웃종교와 비교했을 때 신문,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에서 뒤처져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SNS에 있다”고 말했다.

송묵 스님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주목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과 함께 1배씩 하다보면 108배가 대중화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등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도 놀이 등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린이포교 등 계층포교

불교계의 문제는 출가자, 신도 등 구성원의 고령화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열악하다. 군포교 역시 문제가 많다.



송묵 스님 홍사성 주간 김응철 교수

김응철 교수는 “신세대에게 접근하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법회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는 사찰이 있다. 김 교수는 “스님이 될 새 아이 문자를 보내고, 콘텐츠를 전하는 곳은 어린이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단순히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라포(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콘텐츠의 맞춤 제공도 필요하다.

송묵 스님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성인용 등으로 타켓을 정해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 등 계층별 이슈를 해소해주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스님은 노인 포교를 위해서는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해외포교

한국불교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해외포교는 세 가지로 나뉜다.

김응철 교수는 “①해외교민 포교 ②해외현지

인 포교 ③국내이주민 포교로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불교는 해외교민 포교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지 출가자 등 해외포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거점 사찰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재불사가 해법

전문가들은 “포교에 여러 주제가 있어도 결국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홍사성 주간은 포교활동을 하는 대상 이전에, 포교를 통해 길러지는 인재에 주목했다. 홍 주간은 “지혜를 갖추고 지비를 실천하는 인간을 길러냄을 포교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는 돌아볼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SNS가 포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대포교는 콘텐츠의 싸움인데, 콘텐츠를 생산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해서는 신세대 불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묵 스님은 “포교원은 발심포교법회 등을 통해 확립시켰던 신도교육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며 “신도 등록을 통한 해택 현실화, 원찰가기 운동 등을 통해 등록신도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조계종 주요 포교연혁

-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 개원
- 1962년 12월 14일 조계종 불교단체 등록
- 1962년 12월 28일 제2회 중앙총회 개최(교육법·포교법 제정 공포)
- 1963년 9월 13일 조계종 신도회, 불교단체 등록
- 1966년 11월 제8차 세계불교대회 참가(태극 방곡)
- 1967년 1월 25일 조계종 군중추진위원회 발족
- 1967년 4월 15일 전국신도회 전국 24개 구군단위 신도회 조직완료
- 1970년 7월 7일 제1회 불교미술대전 개최
- 1970년 10월 10~15일 서울에서 세계불교지도자대회 개최
- 1971년 4월 교화제연구위원회 발족
- 1971년 12월 1일 조계종 흥공 흥법원 개원
- 1972년 7월 29일 조계종 전국신도회, 서울 신도회 창립
- 1972년 10월 22일 미국 노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스시에 재미흥법원 설립
- 1973년 8월 26일 제2차 세계불교청년지도자 대회 개최
- 1975년 1월 14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 1975년 7월 17일 제1회 불교예술 경연대회
- 1975년 8월 1일 조계종 호국승군단 헌장, 종령 공포
- 1975년 12월 17일 조계종, 호국승군단 발단
- 1977년 3월 6일 포교원 개원 및 초대포교원장 석주 스님 취임
- 1978년 10월 1~15일 제12차 세계불교대회 참가
- 1981년 3월 19일 포교원 설립
- 1982년 3월 12~14일 제1회 포교사 연수회 개최(도선사)
- 1983년 4월 한일불교교류협회, 한일불교대회 개최
- 1983년 10월 3~6일 한국불교문화교류협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 1986년 3월 28일 총무원, 경주제 실시 촉구
- 1987년 1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승단 발대식
- 1988년 1월 27일 제1회 포교대상 시상식
- 1988년 4월 21일 제1차 포교사 재교육 실시
- 1990년 10월 29일 제1회 불교문화관광 시상
- 1990년 11월 3일 제1회 불교문학상 시상
- 1991년 2월 7일 군중창설 40주년 기념식
- 1991년 3월 16일 전국포교사단 창단
- 1993년 6월 5일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단법인 설립인가
- 1995년 1월 20일 포교원 개원
- 1995년 5월 21일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개최
- 1995년 10월 29일 제1회 포교사교사 실시
- 1996년 3월 12일 제1회 불교교양대학 대표자 회의
- 1996년 5월 12일 파라미타 발대식(울림박물관 역도경기장)
- 1996년 9월 14일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창립
- 1996년 10월 6일 청와대 불자회 창립법회
- 1997년 2월 24일 포교원 '전법이해' 선포식 및 10대 사업계획 발표
- 1997년 3월 15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법회
- 1998년 4월 11일 전법인 해 조직위원회,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 봉행
- 2000년 9월 27일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 2000년 11월 27일 포교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 2001년 5월 14일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2001년 10월 21일 전국 경찰 불교의 청정리
- 2001년 11월 13일 신도기독교육 캠페인 발대식
- 2001년 11월 30일 대전 계룡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
- 2002년 5월 11일 김천 지사사에서 첫 템플스테이 실시
- 2002년 5월 20일 템플스테이 사무국 개설
- 2002년 6월 20일 신도전문교육 교불심 불행
- 2002년 8월 20일 군법단 종단 등록제 시행
- 2002년 12월 1일 제1회 자비의 선물 보내기
- 2003년 6월 18일 신원정보센터 개소
- 2003년 9월 1일 해외임업인 템플스테이
- 2003년 12월 26일 제1회 청소년등공모전
- 2004년 5월 26일 제1회 불자대상 시상
- 2005년 1월 28일 포교원, 포교비전 발표
- 2005년 7월 25일 군중특별교구 출범(교구장 일민 스님)
- 2006년 1월 7일 포교원, 포교전선대회
- 2006년 3월 29일 제1차 포교정책연회
- 2006년 11월 11일 어린이 포교 전대회
- 2007년 1월 1일 포교원, 어린이청소년년 신설
- 2007년 2월 1일 어린이포교 콘텐츠 개발
- 2007년 2월 25일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자 고시
- 2007년 6월 1일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푸른마' 창립법회
- 2007년 10월 20일 선으로 만나는 사찰음식 체험전 개최
- 2008년 1월 22일 어린이포교 사이트 오픈
- 2008년 1월 12일 어린이불교영양 양육대회 개최
- 2008년 1월 20일 제1회 불교성당신자 자각고시 시행
- 2008년 9월 30일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창립식
- 2008년 12월 5일 제5회 불교출판문화상
- 2009년 3월 10일 어린이청소년 포교포럼도량제 시행
- 2009년 4월 1일 포교원, 새신도증발급
- 2009년 4월 8일 조계종 전법회관 개관식
- 2009년 4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
- 2009년 6월 10일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 62곳 선정
- 2009년 7월 11일 어린이청소년 포교전대회
- 2009년 7월 12일 제1회 포교원장회 추경대회
- 2009년 9월 26일 제1회 청소년지도자 고시
- 2010년 2월 6일 어린이영양법회 교재 개발
- 2010년 6월 10일 자비나눔 캠페인 '만행' 선포식
- 2010년 8월 15일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 2010년 10월 25일 시각장애인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 2010년 11월 5일 나눔결사 김천(홍제3동 개마마을)
- 2010년 11월 15일 국제선선대 개원
- 2011년 4월 29일 조계종 전법단 출범 1주년 기념식
- 2011년 8월 31일 신도멤버십센터 개소
- 2011년 9월 25일 제1회 템플스테이 논문공모전 시상
- 2011년 11월 22일 종단 최초 영복 템플스테이 출시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POWERED MIXER 앰프 PM-805
-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 DX-707 스텐드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